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정진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회설립 5주년... 기념행사 준비 한창

바자 · 성경암송 · 사진전 · 선교사 파송 등 다채

○...오는 11월24일 교회설립 5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각종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우리교회가 설립된 것은 지난 91년. 그동안 교회는 설립당시의 목표인 교육 · 선교 · 구제 라는 세 기둥 위에 자리잡고 한국교회 갱신과 이 시대의 향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설립 5주년이 되는 금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부흥과 도약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갖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바자

교회건축과 농어촌 자매교회를 위한 바자가 10월 23(수), 24(목) 양일간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교회당에서 열리게 된다. 이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새 예배당 건축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바자에는 우리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농어촌 자매교회에서 직송한 농수산물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전교인성경암송대회

11월 10일(주일)에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예선은 각 교회학 교별로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선은 저녁 찬양예배 시에 갖게 된다. 암송할 성경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인 '요한복음 17장'.

음악예배

11월 17일(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96추수 감사절과 아울러 교회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예배로 드린다. 찬양은 합렐루야찬양대가 주관하여 드리게 된다.

감사예배 · 성찬식

교회설립일인 11월 24일(주일) I, II, III부 예배는 감사예배로 드리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한다. 올해 설립기념일은 91년 설립당시와 똑같은 날짜여서 더욱 새롭다.

사진전시회

우리 교회의 지난 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창립 당시와 논현동 시절의 교회 모습, 반포동으로 이사한 후 각종 행사와 우리 교회의 세가지 목표인 교육 · 선

교 · 구제를 실천해 온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장로 장립 및 안수식

교회설립 5주년 기념일인 11월 24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4명의 피택장로가 장립식 및 안수식을 갖게 된다. 지난 6월 2일에 선출된 이영기 · 성준경 · 김상철 · 김영준 4명의 피택장로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왔으며 오는 10월 8일에는 고시를 위한 노회가 주관하는 예비공부에 참석하게 된다. 10월 15일 시뮬한 후 시험에 합격하면 11월 24일 안수를 받게 된다.

선교사 파송식

11월 24일(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박종상

교역사를 중앙아시아로 보내는 파송식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설립 초부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온 '만민에게 복음전파'를 위한 우리 교회의 선교사명을 재다짐하게 된다.

'96비전2000운동 승전감사 · 전도시상식

11월 24일은 또한 10월 6일에 발대식을 갖고 출발한 '96비전 2000운동 50일간의 행진을 마치고 승전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날 찬양예배 시에는 승전보고와 전도상 시상식이 있다.

필그림예술선교단 공연

12월 21일(토)에는 올해 1월에 창단한 필그림예술선교단이 그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성극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교회설립 제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정병무 장로

◇위 원= 임광식 오정수 홍정호 원 호
박귀환 김일용 노송성 서문석 박두호
최난수 방계운 전인화 이변생 김세재
정무균 신용식 정동호 이인선 김정희
이연숙 구명덕 한명순

'96 비전2000 운동 D-14

'96 비전2000 운동의 표어와 주제성구, 기도제목이 확정되었다.

표어는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이다.

주제성구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인 “우리는 보고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이며, 주제찬송은 찬송가 259장인 “빛의 사자들여”이다.

비전2000운동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여 2000년까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

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자는 운동이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교회설립 기념일 50일전부터 이 운동을 펼친다.

올해의 비전2000 운동은 '① 기도하자 ② 복음 전하자 ③ 잃은 양을 찾자'는 행동강령 하에 '다니엘기도'와 '50일 연속기도' 등 기도운동과 '전교인 1인 10명 초 청전도' 등 전도운동, 그리고 교회학교 · 다락방 · 남녀선교회의 잃은양 찾기와 배가운 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	시편133편 1절 - 3절 인도자
찬송	460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시편 128편 1 ~ 6절 인도자
메시지	"감사하는 가족" 인도자
찬송	305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메시지

“감사하는 가족”

(말씀: 시편 128편 1~6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농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웃어른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친척·이웃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내놓을 열매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읍시다.

시편12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이 감사할 것과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경은 가족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였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성경은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이 땅에서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족은 후대에게도 땅에서도 강성하며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3. 성경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 그 계명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부요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향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고 빌려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 전파하며 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며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영히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시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유대인한테 배우는 지혜

우리의 명절도 은혜의 절기로

이스라엘백성은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을 3대 절기로 지켰고 이 밖에 속죄일도 큰 절기로 여기고 이를 지켰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민족적인 행사였다(출12:1-51).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나 50일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내던 절기이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고난으로부터 구출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장막생활 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이므로 이를 “추수절”이라고도 했다(신16:13-17).

속죄일은 율법에서 정한 금식일인데 민수기에 그 제사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민16:1-34).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지 한 세기가 지나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었다. 복음이 이 땅에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가나안의 농경문화를 배우며 가나안의 농경절을 그들의 생활에 수용하여 유대의 종교문화를 창출하였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서 소중한 것은 수용하여 기독교적인 것으로 재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원한 것을 창조해야 한다.

추석은 우리민족이 신라시대부터 명절로 지내오던 것으로 지금도 큰 명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의 추수를 감사하던 초실절(레23:9-14)을 지킨 것처럼 이날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날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자로서 성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며, 효도와 우애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뜻있는 절기로 삼아야 하겠다.

◆ 순례자 컬럼 ◆

“고마움”

사람은 은혜 중에 나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속에서 죽는 존재다. 세상에 남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배은망덕은 부끄러운 행동이고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공리적인 사회 속에서 타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은혜에 보답하려는 정신이 희박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은 식막하다 못해 질식할 것만 같이 보인다.

사람은 제 힘으로 저 혼자만은 살 수 없다. 내 존재와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혜로 되었음을 인지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힘 입고 살았는가.

고마움을 아는 마음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근본이요, 시작이다.

환경운동과 교회의 역할

“에덴동산을 지키고 가꾸듯이”

■...이 글은 지난 16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김정욱 박사가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

1. 창조질서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오묘한 섭리를 지니고 있다.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뚜렷한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복돋우어 주는 데 있어야 한다. 그 원래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계에 큰 변형을 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과 밖에 얻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창조질서의 파괴

지금 인류는 자연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도 이 땅을 수많은 오염물질로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 주고 계신다. 자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생물들이다. 알고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자연을 모방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물들을 모방한 것이 많다. 많은 생물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워서 그것을 보는 것 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 생물들이 바로 우리 생명의 기반이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재료이고 생활의 지혜의 근원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인류는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삼림이나 습지 같은 생물들의 가장 중요한 서식지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인류는 또 많은 땅들을 황무한 사막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3. 21세기의 환경문제

이러한 환경문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인류에게 큰 재난으로 닥칠 것이다. 현재 50억의 인구가 다음 세기에 들어서서 80억 내지 14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류의 끊임없는 경제개발 노력에 힘입어 지구의 경제 규모가 앞으로 2025년이면 다섯배, 2050년이면 열배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규모가 열 배 커진다는 말은 생산이 열 배 커진다는 말과 같고, 에너지와 자원이 열 배 더 필요하고 환경파괴행위도 열 배 더 커진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열 배나 더 커진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에너지와 자원이 이 지구상에는 없다. 이러한 경제는 대부분이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 광물, 삼림, 흙, 바다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이러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어서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보다 열 배나 더 커진 환경과 파괴행위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열 배나 더 커진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가 인류의 앞날을 위협한다.

4. 교회의 사명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자멸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이르러 인류의 최대 과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환경위기에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린 대규모의 자연파괴 혹은 변형행위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싸워 이기는 행위를 미덕으로 기려왔으나, 인간은 결코 자연을 거스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자연법칙에 순응해서 자연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야 한다. 성경에는 분명히 에덴동산을 “가꾸고 지키도록 (to dress and to keep)”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2:15).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의 종말이 나날이 나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

교회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충성된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각오로 열심히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감사 · 감사 ·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장낙희 (집사, 2교구)



74년 설날 아침,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나가시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에서는 오로지 어머니만이 출석하셨는데 그 교회는 약 40명이 출석하는 자그마한 교회였다. 그런 교회에 시동생 가족까지 합하여 모두 8명이 나가니 우리는 대환영을 받았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갈 때마다 환대

에 어께가 우쭐해서 교회에 나가기를 즐겨하였다. 주일이면 아이를 업고 하나는 걸리고 대예배, 저녁예배에 참석했고 월요일이 되면 수요일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잔칫날처럼 기쁜 마음으로 구역장의 인도 하에 다락방 모임을 갖고 성도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다. 성경지식은 적어도 열심과 기쁨은 날마다 넘쳤다.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격도 있었으나 초신자로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가지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점차 성장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점진적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더욱이 이제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사 기쁨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범벅이 될때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던 그 날부터 시시때때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끌어주시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감사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본다.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시고 이전보다 성숙하게 해 주신 것 감사, 적당한 어려움을 통해 긴장감을 주심 감사, 가족 모두가 하나되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 어느 것 하나 감사치 아니한 것이 없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가 넘친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19일(목)과 20일(금)에 열린 교사세미나

교사를 위한 가을세미나 현장

19 ~ 20일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가을세미나가 열렸다.

이종운 목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거듭난 인간·성숙한 신자·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교육목표로 하는 우리교회 교육의 실제성과 교사의 모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첫날 강의를 맡은 박귀환 목사는(중등부 지도)는 "효율적인 교사교육과 교사관리"라는 제하의 강의를 통해 현재 교회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세기 교사교육의 과제들과 교사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몇가지로 제시하였다.

둘째날 이순환 목사(새가족부 지도)는 "교회학교의 바람직한 새가족 관리"에 대해 교회의 양적 성장은 전도와 새가족 양육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해야 할 일들을 실제적으로 제시하였다.

좀더 내실있는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는 12개 교회학교 교사 뿐 아니라 내년도 교사지망생들이 참여하였다.

■ 목회자동정 ■

* 박종상 교역사는 지난 14일 총회에서 목사고시 합격 인준을 받았다. 박 교역사는 오는 11월 5일 강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1월 24일 선교사로 파송될 예정이다. 한편 박 교역사는 9월 16일부터 장신대 선교대학원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 S. T. 로간 박사(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가 23일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초청으로 내한하여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강연을 한다. 로간 총장은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하기 전 우리 교회 이종운 목사에게 웨스트민스터 마크를 새긴 의자를 항공으로 보내왔다. 그는 이 목사를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자랑스런 동문으로 기억하면서 이 선물을 보낸다고 했다.

26~28일 성경통독사경회

10분 전에 입실완료하여 준비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추석연휴기간인 26, 27, 28일 등 3일간 교회당에서 실시하는 성경통독사경회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언제라도 교육위원회나 교구담당 목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성경통독사경회는 오전 8시부터 읽기가 시작되며 참가자는 오전 7시 50분까지 교회당에 입장하여 준비하면 된다.

시간표는 제 1교시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제 2교시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 3교시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26일(목)과 27일(금)은 3교시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8일(토)에는 2교시까지만 진행하게 된다. 식사와 휴식시간은 12시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이다.

참가자가 준비할 것은 통독하기에 편한 글씨가 큰 성경과 색연필 등 필기구로 성경책은 당일 교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찬양대 지휘자 2명 새로 영입

임마누엘찬양대 배영준 선생

시온찬양대 강민희 선생

임마누엘찬양대와 시온찬양대가 새 지휘자를 맞는다.

새로 찬양대를 맡을 지휘자는 임마누엘찬양대는 배영준선생, 시온찬양대는 강민희선생.

배영준 선생은 1951년 서울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을 졸업했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서울신대, 장로회신학교, 동덕여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강민희 선생은 1963년 서울에서 출생, 추계예술학교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오스트리아 빈의 프라이너 음악원과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했다.

■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⑤ 9월 3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소비문화와 한국경제 (서상목 박사)
- ⑥ 10월 7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기독교신앙과 전통윤리 (김중기 박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가정의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2. 교회설립 기념행사와 비전2000운동을 위하여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4.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